

조선의 불균등 발전과 식민지 모더니즘 — 이태준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1930-1937 —

배 개 화*

요 약

이태준의 단편소설들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 때문에 몰락하여 고향을 떠나는 조선 농민들, 1930년대 경성 시내와 변두리 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조선인들을 주로 묘사하였다. 이태준 단편소설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일본은 근대 그리고 조선은 전근대적인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의 소설이 근대화론 사라져가는 조선적인 것에 향수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 논문은 이태준이 묘사한 조선인의 모습은 식민지 근대화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다. 이태준은 일본 제국과 식민지 조선의 국제 분업에 의한 조선의 불균등 발전과 그로 인해 생긴 새로운 유형의 조선인과 그 삶을 묘사하였다. 제국은 하층 조선인들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인 잉여 노동력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이태준은 자신의 소설에서 이들을 아름답고 섬세한 조선어로 묘사함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이태준의 단편소설은 하층 조선인을 묘사함으로써 식민 통치자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그들에게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하였으며, 이런 방식으로 '식민지 모더니즘'의 한 유형을 창조하였다.

주제어: 이태준, 단편소설, 불균등 발전, 식민지 조선, 모더니즘, 경성, 하층민

*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목차

1. 서론: 이태준의 단편소설과 조선의 불균등 발전
2. 도시 빈민의 유래, 식민지 정책에 따른 농촌의 몰락
3. 이중 도시 경성 속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
4. 경성의 변두리에 거주하는 하층 조선인의 묘사
5. 결론: 불균등 발전에 대한 문학적 반응, 식민지 모더니즘

1. 서론: 이태준의 단편소설과 조선의 불균등 발전

이 논문은 이태준 문학의 모더니즘은 일본 제국과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적 노동 분업이 초래한 불균등 발전(uneven development)¹⁾에 대한 문화적 반응이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태준의 단편소설은 도시와 시골, 일본인과 조선인 사회의 불균등 발전과 그로 인한 조선인의 삶의 변화를 형상화하였다.

1910년 일본 제국은 조선을 식민지로 편입한 후, 일본은 사적 소유 제도를 조선에 이식하였으며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노동 분업 모델을 조선에 적용하였다. 또한, 일본은 1921년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허용하면서 조선의 자본주의화의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식민지 조선은 원료의 공급(주로 쌀의 공급)과 낮은 수준의 경공업 생산 그리고 일본 상품의 소비 시장으로 재편되었다.²⁾

1) 닐 스미스에 따르면 불균등 발전은 현대 자본주의의 결과로서 노동 분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인 노동 분업 규모에서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제조업과 농업 간 분업에 근거한다. 이 분업은 역사적으로 중요하며 농촌과 도시의 분리라는 직접적인 공간적 표현을 얻는다. 이러한 노동의 영역적 분업의 국제화는 제국과 식민지의 공간적 대립으로 표현된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는 값싼 원료의 공급과 제국에서 생산한 공산품의 신흥 시장으로서 식민지를 개척하였다. 식민지는 제국에 의해 자본주의가 이식되지만,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노동 분업 때문에 저개발의 개발을 경험하게 된다: 닐 스미스, 최병두 외 번역, 『불균등 발전: 자연, 자본, 공간의 생산』, 한울, 2017, 204-209면.

이에 따라 조선 내부도 공간적으로 이중화 되고 불균등하게 발전하였다. 농촌 지역은 주로 일본으로 수출할 쌀의 생산지로서 역할이 고정되었고, 경성은 총독부가 있는 행정 수도를 넘어서 상업 및 공업 도시로 변모하였다. 경성도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분리 정책에 따라 두 민족의 거주지가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식민지 수도 특유의 ‘이중 도시’(dual city)로 발전하였다.³⁾ 이에 따라 조선은 공간적인 위계-도시와 농촌, 경성 내부의 남촌과 북촌, 그리고 경성과 경성 교외-에 따라서 차별적인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태준은, 카프 작가들처럼 조선의 불균등 발전을 계급의 문제-지주 대 소작인 혹은 자본가 대 노동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대립의 문제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대립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당시 조선의 불균등 발전이 현상적으로 일본인 사회와 조선인 사회 사이의 불균등한 발전으로 나타났으며,⁴⁾ 일본인은 도시에 조선인은 농촌에 주로 거주했기 때문이다.⁵⁾ 경성도 조선인 거주지역과 일본인 거주지역으로 분리되어 교통망의 건설, 위생이나 사회적 서비스 등이 조선인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제공되었으며 조선인은 평균적으로 일본인에 비해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였다.⁶⁾

이에 따라, 이태준은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 특히 도시 빈민이나 경성 교외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계몽 문학이나 계급 문학에서 잘

2) 카터 J. 에커트, 주익중 역, 『제국의 후예』, 푸른역사, 2008, 85-86, 93면.

3) 김종근, 『식민 도시 경성의 이중 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학』 38, 2010.2, 14-43면.

4) Park Chan-seung, “Japanese Rule and Colonial Dual Society,” *Korea Journal*, Vol. 50, No. 4, 2010.12, pp. 69-98.

5) 1920-30년까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51%가 도시 지역인 14부(府)에 살았고, 그 가운데 40%가 경성에서 살았다; 손정목, 『일제 강점기 도시화 과정 연구』, 일지사, 1996, 140-143면.

6) 1920년대 일본에서는 월수입 20원 이하를 빈민으로 분류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조선 민중 대부분이 빈민이었다; 김종근, 앞의 글, 37-38면.

다루지 않는 사람들을 문학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삼았다.⁷⁾ 이태준은 경성 시내나 교외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자신의 ‘마음을 끌고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드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상을 “가엾은 친구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독자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연을 곁들여서 묘사했는데,⁸⁾ 이들은 모두 조선의 불균등하고 복합적인 발전의 인격화된 표현이었다. 그들은 일본의 식민지 경제 정책으로 몰락하여 도시로 이주하는 조선 농민, 토지의 사적 소유 제도와 함께 생겨난 토막민, 그리고 1936년부터 경성이 공간적으로 확대되면서 도시화의 압력 아래 놓인 경성 교외 지역 조선인이었다.

이태준은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당대의 비평가들로부터 ‘순수 문학자’ 혹은 ‘사상이 빈곤한 작가’라는 평가를 받았다.⁹⁾ 동시에 그는 조선인 하층 계급의 삶을 주로 묘사한 이유로 ‘비경향 문학이 나온 최고의 작가’ 혹은 ‘정치적으로 중간파’로서 규정되었다.¹⁰⁾ 1988년 이후의 학술적 연구들은 대체로 그의 문학을 ‘예술가 소설’로 규정하고, 단편소설의 서정적 분위기나 묘사 방식이나 미적 모더니티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였다.¹¹⁾ 근대성을 강조

7) 이태준의 단편소설(1930-37) 중 상당수는 조선인 빈민-춘궁민, 토막민, 화전민 등의 삶을 묘사하였다 (강만길, 『일제 시대의 도시빈민 생활-토막민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제53호, 1986, 111면). 장영우는 이런 소설을 ‘지식인 문학’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장영우, 『이태준: 그들의 문학과 생애』, 한길사, 2010, 총230면.

8) 이태준, 『그들의 얼굴 위에』(『신가정』, 1933.03), 『무서록: 이태준문학전집』 15, 221면.

9) 김기림, 『스타일리스트, 이태준 씨를 논함』, 『조선일보』, 1933.6.25.; 최재서, 『단편 작가로서의 이태준』,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175-180면; 백철, 『문학과 사상성의 검토-내가 쓰는 작가 이태준론』, 『동아일보』, 1938.02.15-16.

10) 임화, 『본격소설론』,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374면; 홍효민, 『1934년 조선 문단-간단한 회고와 전망을 곁다려』, 『동아일보』, 1934.1.1.-4; 박승극, 『조선 문단의 회고와 비판』, 『신인문학』, 1935.3, 77-78면.

11) 이태준 단편소설의 예술성과 모더니티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첫째, ‘서정 소

하는 연구자들은 일본적인 것은 근대적인 것, 조선적인 것은 전근대적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이태준의 문학이 조선적인 것에 집착하고 근대화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향수를 보인다고 평가했다.¹²⁾ 소수의 연구자는 하층 조선인들이나 지식인이 주로 묘사되는 것을 근거로 그의 작품에 계급적, 반자본주의적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¹³⁾ 최근에는 공간 연구의 영향으로 이태준이 1933년부터 1946년까지 살았던 성북동과 그의 문학과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논문들이 출판되고 있다.¹⁴⁾

이 논문은 이태준이 묘사한 조선인들의 모습은 식민지의 근대화와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전근대적인 것이 아니라 식민지 근대화의 산물로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었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그의 단편소설(1930-1937)이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따른 공간적인

설'로 규정한 이익성의 『한국현대서정소설론』(태학사, 1995)과 최은영의 『이태준 서정소설의 특질연구』(『순천향인문과학논총』, 제27집, 2010)이 있으며; 둘째, 회화성에 초점을 맞춘 박진숙의 『동양주의 미술론과 이태준의 문학』(『한국현대문학연구』, 제16집, 2004), 김미영의 『이태준 소설의 회화적 특징연구』(『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4호, 2008); 마지막으로, 이태준 단편소설의 근대성을 해명한 박헌호의 『이태준과 한국근대소설의 성격』(소명출판, 1999)과 김민정의 『한국 근대문학의 유인과 미적 주체의 좌표』(소명출판, 2005)가 있다.

- 12) 상고주의 혹은 반근대주의로 규정한 연구로는 김윤식의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일지사, 1978)과 황종연의 『한국문학의 근대와 반근대』(동국대학교 박사, 1992.8)가 있다.
- 13) 이태준 단편소설의 내용-사상적 측면에 관한 연구로는 첫째, 지사적 민족주의로 보는 강진호의 『이태준 문학 연구』(고려대 석사, 1987)와 이선미의 『이태준 소설 연구』(연세대 석사, 1990); 둘째, 계몽주의 지식인 소설로 보는 하정일, 『계몽의 내면화와 자기 확인의 서사』(『근대문화와 구인회』, 깊은샘, 1998), 이현식의 『1930년대 이태준 소설의 특성 연구』(『상허학보』, 18, 2006) 그리고 장영우의 『이태준』(한길사, 2008); 마지막으로 낭만적 반자본주의로 보는 김재용의 『한국근대민족문학사』(한길사, 2003)과 장수익의 『이태준 단편소설에 나타난 계급 관계와 미의식』(『현대문학 이론과 비평』, 제8권 2호, 2004)가 있다.
- 14) 조형래, 『이태준과 성북동』, 『상허학보』 51, 2017, 141-186면; 조형래는 이태준이 그린 성북동은 농촌지역과 중산층 거주지가 공존하는 곳이었다고 지적했다.

불균등 발전으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삶과 인간에 대한 문화적 반응이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2. 도시 빈민의 유래, 식민지 정책에 따른 농촌의 몰락

1910년 일본 제국은 조선을 식민지로 편입한 후,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노동 분업 모델을 식민지에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식민지 조선은 원료의 공급(주로 쌀의 공급)과 낮은 수준의 경공업 생산 그리고 일본 상품의 소비 시장으로 재편되었다. 조선 쌀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 일본은 조선의 토지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기존의 지주-소작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¹⁵⁾

이러한 일본의 조선 정책은 지주 계층과 농민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1919년까지 조선의 지주들은 일본으로의 쌀 수출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익을 얻었고 그중 일부는 기업가로 변신했다.¹⁶⁾ 반면에 토지 및 세제 개혁을 통해서 지주-소작 관계가 현대적, 혹은 법적 체계로 옮겨감으로써 채래의 상호 의무 관계는 손상되었고, 총독부의 토지 조사의 결과와 시장 관계의 발전으로 토지가 대지주에게 집중화되어 많은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¹⁷⁾ 이들은 다시 화전민, 농업 노동자(머슴)가 되거나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여 도시 빈민이 되거나 만주로 해외 이민을 가기도 하였다.¹⁸⁾

15)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75면.

16) 카터 J. 에커트, 앞의 책, 46-47면.

17)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77-78면.

18) 장시원, 「식민지하 조선의 반봉건적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 1920-30년대를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이태준의 눈에도 포착되었다. 『꽃나무는 심어놓고』(1933.3)는 농촌 문제-소작농의 몰락과 이농 현상-에 대한 이태준의 비판적 시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¹⁹⁾ 이태준은 방 서방 가족을 통해 조선 농촌의 문제를 조선 농민과 일본인 지주의 대립으로, 그리고 조선 농민들의 성실함과 식민 통치자에 대한 순종에도 식민지 체제는 그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파산해서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작가는 소작농인 방 서방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로 소작인에 대한 일본인 지주-동양척식주식회사-의 착취를 제시하였다. 방 서방 가족은 김 진사의 땅을 몇 대째 내 땅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고 소작해 왔다. 덕분에 방 서방은 서른두 살이 되는 동안 고향에서 가족들과 별로 아쉬운 것 없이 살았다. 하지만 김 진사 집안이 망하고 지주가 일본 사람 회사, 즉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바뀐 후부터 소작인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 소작비가 몇 배나 올라가고, 논에는 ‘금비’-질소비료-를 쓰라고 하고 그것을 대어 주고는 가을에 비싼 이자를 쳐서 벼는 헐값으로 따져가고, 무슨 세납, 무슨 요금하고 이름도 모르던 것을 다물리어 나중에 따지고 보면 농사를 지은 품값은 커녕 도리어 빚을 지게 되었다.²⁰⁾ 방 서방과 같은 소작농들은 지는 빛을 갚을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중심으로. 『경제사학』 4권, 1980, 91면. 소작농의 증가와 소작 조건의 악화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이탈하였다. 1925년부터 1935년 사이에 농촌을 떠난 인구는 약 88만 8천 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만주, 일본으로 이동한 인구는 61만 1천명, 도시로 이동한 인구는 27만 7천명이었다. 일본이 전시 체제에 돌입하면서 조선 사회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기 시작한 1936년부터 1940년까지는 연평균 약 21만 명이 도시로 이동하였다; 곽건홍, 『일제 하 빈민』, 『역사비평』 46, 역사비평사, 1999, 164면.

19) 이태준, 『꽃나무는 심어놓고』, 『달밤』,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 121-136면.

20) 이러한 내용은 일제 강점기 소작관행에 대한 지적과 일치한다. 印貞植, 『朝鮮農業經濟論』, 박문출판사, 1947, 108-110면; 장시원, 앞의 글, 59-60면에서 재인용.

고향을 떠났다.

농민들이 자꾸 떠나 “전에는 모범촌이던 동리가 폐동이 될 징조”를 보이자, 군청에서는 농민들에게 벚꽃 나무를 나눠 주고 길과 언덕에도 심어주었다. 벚꽃 나무를 동네에 심은 이유는 벚꽃 나무들이 “꽃이 구름처럼 피면 무지한 이 동리 사람들이라도 자기 동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함부로 타관으로 떠나가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¹⁾ 나무는 모두 죽지 않고 잘 살아났다. 방 서방네가 심은 것도 모두 싱싱하게 잘 자라났다. 하지만 떠날 사람들은 자꾸 떠나고야 말았고, 방 서방과 그의 가족도 “혹시 죽는 나무나 있을까 하여 조석으로 들여다보면서 애를 썼던” 꽃나무가 내년 봄에는 필 것을 보지 못하고 추운 겨울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²²⁾

총독부가 조선에 이식한 ‘사적 소유’ 제도는 다른 유형의 관습적 권리도 침해하여 조선인들의 몰락을 유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삼림령>을 발표하고, 산림의 임의 벌목, 방화 및 타인 산림의 개간을 금지하고 이것을 어기면 처벌하였다.²³⁾ 또한, 우량한 산림은 총독부가 직접 관리하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 산림은 일본인을 중심으로 민간인에게 처분하였다.²⁴⁾ 이러한 조치는 산림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갖고 있던 지역 주민들과의 법률적 분쟁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분쟁은 1920년대에 급증하였고 북부지방에서 극심하였는데, 화전민들은 총독부가 산림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반발하여 자살하는 등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²⁵⁾

21) 이태준, 『꽃나무는 심어놓고』, 137-140면.

22) 위의 책, 140면.

23) 朝鮮總督府, 『森林令』, 朝鮮總督府 制令 10號, 1911.06.20

24) 배재수 외, 『한국의 근, 현대 산림소유권 변천사』, 임업연구원, 2001, 180면.

25) 위의 책, 178면. 『森林令의 殺人, 삼림령으로 살 수 업서 화전민이 자살』, 『동아일보』, 1925.06.01; 『森林令團東去益甚 火田民의 生活漠然-삼림령단속이 갈수록 심해져서 벌금 구류 등 위반자가 날로 늘어 五百餘戶의 過冬이 問題(伊川)』, 『동아일보』, 1930.10.13. 1930년의 춘천 지역의 경우 삼림령 위반자가 매

『촌띠기』는 산림에 대한 소유권의 법제화가 낳은 하층 조선민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²⁶⁾ 주인공 장군이는 안악골²⁷⁾에서 그중에서도 제일 외따로 떨어져 있는 오막살이를 근거로 살아왔다. 장군이의 가족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화전(火田)을 일구고 숲을 굽고 텃과 함정을 놓아 산짐승이나 잡아먹는 구차한 살림이나마 굶지는 않고 남에게 구걸은 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총독부가 1911년 산림령을 공포한 이후 하루아침에 산의 주인이 생겼고, 화전민은 산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존재가 되었다.

산의 주인과 공권력은 화전민의 생계 활동을 불법이라며 금지하였고 이것은 화전민의 생존을 위협하였다. 소설에서 안악골의 소유권자인 삼정(미쓰이) 회사는 부대를 파지 못한다, 숲을 허가 없이 굽지 못한다, 또 경찰서에서는 멧돼지 함정이나 여우 텃은 물론이요, 꿩 창애(텃) 같은 것도 허가 없이는 못 놓는다고 금지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봄 여름에는 산나물이나 뜯어 먹고, 가을엔 멀구 다래나 하고 도토리나 주어다 먹고, 겨울에는 곤충류와 같이 땅속에 들어가 동면(冬眠)이나 할 수 있으면 상책”이게 되었다.²⁸⁾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었다.

안악골의 화전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위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장군이가 역시 위법한 생활을 이어갔으나, 그의 행운은 얼마 가지 못했다. 순사부장이 사냥을 나왔다가 장군이가 파놓은 멧돼지와 노루의 함정에 빠졌다. 이 때문에 장군이는 노루 함정을 파놓은 것이 들켜서 20여 일 동안 유치장에 갇혔다.

장군이도 사냥과 숲 굽는 것이 금지된 이후에 다른 살길을 찾지

월 60명에 이르렀다. (『삼림령 위반 매월 60여 건』, 『동아일보』, 1930.09.08)

26) 화전민이 계층으로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 것은 1927년부터이다: 小半天九郎, 『朝鮮農業發達史』, 發達編, 附錄 第3表: 장시원, 앞의 글, 50면.

27) 황해남도 흥진면 안악리로 추정.

28) 이태준, 『촌띠기』, 『달밤』,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 206면.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안악골 입구에 있는 물방앗간을 수리하여 곡식을 찧어주는 것으로 먹고 살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가 물방앗간의 수리를 거의 끝냈을 때, 이웃인 장풍언이 서울에서 발동기(전동모터)를 사 와서 쌀을 찧기 시작했다. 발동기는 물방아보다 비용도 싸고 일손도 적게 들었다. 장군이는 물방아가 발동기에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운영을 포기하였다. 장군이가 계획한 가내수공업은 더 많은 자본력을 가진 이웃과의 경쟁에 밀려 물거품이 되었다.

결국, 장군이는 아내와 이혼하고 도시로 이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지식도 기술도 자본도 없는 장군이는 물방앗간이 발동기에 패배한 것처럼 도시적 삶의 양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패배할 운명이었다. 작가는 이러한 운명을 장군이가 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읍에서조차 ‘촌뜨기’ 취급을 받는 것을 통해 암시하였다.²⁹⁾

이태준의 단편소설에는 몸 파는 기생이나 매춘부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일본이 이식한 공창제도가 확산시킨 새로운 풍속도였다.³⁰⁾ 1916년 총독부는 조선의 각 지역에 ‘공창’을 설립하고 성매매를 당국이 관리, 통제하고자 하였다.³¹⁾ 공창제도는 성매매에 대한 자유 의지가 있는 여성이 포주와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성매매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나 양부모가 포주에게 선수금을 받고 어린 딸을 파는 것이며, 팔린 여성은 선수금 즉 빚을 갚을

29) 위의 글, 217-218면: “『이자식이 왜 큰길에 떡 막아서서 종을 올려도 안 비키나? 촌뜨기녀석 같으니……』 무슨 관청의 급사인듯 양복쟁이나 노상 어린애였다. 그는 자전거 앞바퀴를 들고 한번 굴러보더니 장군이가 탄할 사이도 없이 남실 자전거 위에 올라앉아 달아났다.”

30) 이태준의 『산월이』나 『아무 일도 없소』는 경성 길거리의 밀매음녀나 사창가의 어린 매춘부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이태준, 『산월이』, 『달밤』,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 53-62면; 이태준, 『아무 일도 없소』, 『달밤』,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 161-175면.

31) 야마시다 영애, 『식민지 지배와 공창제도의 전개』, 『사회와 역사』, 제51집, 1997, 162면.

때까지 포주에게 몸이 구속된 상태에서 성매매해야 했다. 당시 상황에서 선수금은 꽤 큰돈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직접 딸을 포주에게 파는 일도 있었고, 농촌 지역 여성이나 기혼 여성을 유인하여 인신매매하는 범죄도 횡횡하였다.³²⁾

1936년에 출판된 『바다』는 함경북도 배기미(梨津)을 배경으로 인신매매에 희생되는 젊은 여성의 비극을 보여준다. 이 소설의 주인공 옥순이는 해상 사고로 부모와 약혼자를 잃고 생계 위기에 처한다. 옥순이 가족은 아버지와 함께 생계의 수단이 되는 배를 잃게 되자 바다가에서 조개나 해초를 주워서 끼니를 이어갔다. 비정한 동네 구장은 옥순이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옥순이의 인신매매를 알선한다. 그는 옥순이를 “안경을 쓰고 윗수염을 제비 꼬리처럼 기른 양복쟁이”에게 선보이고, 옥순이에게 청진의 식당에 가서 일할 것을 권한다.

“청진으루 가서 귀경두 하구 세상이 어떻다는 것두 약간 눈에 떠야지비. 직업으 가지라능 거다.”

“집업으? 무시괌등? 비지께 공장임등?”

“치? 그까짓 비지께 공장에 너르 보내짚능야?”

“그럼 무시괌등?”

“내 너르 못 갈 데 지시르 할 리 있능야? 이제 그 어룡이 청진서 고등 식당으 경영한당이. 나진에다 지점으 두구, 지금 지점으르 들어가는 길인데 너만치한 아더르 삼사 명으 모집한당이……”

“……”

32) 필자가 찾아본 것에 따르면, 1920년부터 1940년까지 『동아일보』에 실린 인신매매 범죄에 관한 기사는 약 536건에 이른다. 인신매매의 주체로는 친부모, 양부모, 남편도 있지만, 직업적 인신매매 범죄자도 많았다. 직업적 범죄자들은 결혼이나 직업 알선으로 여성을 유인하여 사창가나 해외-주로 중국-에 인신매매하였다. 야마시타 영에는 공황제가 인신매매 범죄의 원인이었다고 보았다; 야마시타 영애, 위의 글, 175면.

“직업에 귀청이 있능양? 또 그게 어찌 천하겠능야. 식당에서
접잡은 신사더르 접대하능 게 무실에 천업이겠능야?”³³⁾

구장이 말하는 고등 식당이란 남자들에게 감정 서비스 더 나아가
성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을 의미한다. 일단 선수금을 받고 포주에게
팔리면, 옥순이는 최소한 선수금과 그 이자 이상의 수익이 날 때까
지 포주의 소유물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옥순은 자신이 매춘녀로 팔려
간다는 것을 눈치채고 구장의 제안을 거절하지만, 빚 독촉과 생활난
에 쪼들리는 어머니는 100원의 선수금을 받고 옥순의 ‘인신매매’에
동의한다. 하지만 청진으로 가는 당일에 옥순이는 죽은 약혼자에 대
한 자신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 존엄을 지키
기 위해서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한다.

일본 강점기 내내 문제가 된 성매매 종사 여성과 인신매매 범죄
의 증가는 농촌 지역 조선인의 생활난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다.
1936년 초 『동아일보』는 매매춘에 종사하는 조선 여성은 1만 2000
명으로 11년 전보다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걱정하고, 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경찰의 단속이나 매매춘 여성의 윤리의식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농촌의 생활난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
장했다.³⁴⁾ 이태준은 당시 공업 도시로 조성되어 일본인 거주자가
많았던 청진을 배경으로 하여 이 문제가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문
제임을 암시하였다.

33) 이태준, 『바다』, 『가마귀』,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 109면.

34) 『춘궁기와 인신매매 문제』, 『동아일보』, 1936.2.25.;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에 따르면 조선인 창녀의 수는 1910년 1,193명에서 1942년 10,169명으로 증
가하였다; 야마시타 영애, 앞의 글, 170면.

3. 이중 도시 경성 속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

경성의 인구는 1920년대 이후 많이 증가했으며 점점 ‘이중 도시’(dual city)라는 식민지 수도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경성의 인구는 1920년부터 크게 늘어 1930년에는 약 39.4만 명, 그리고 1940년에는 93.5만 명이 되었다.³⁵⁾ 이중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20년에 26.2%에서 1930년 26.8%, 1935년 28%로 점차 커졌다. 게다가 경성에 오는 일본인들이 대부분 “관리나 대소상인, 기타 기업가”이었음에 비해, 경성으로 유입된 조선인들은 “소수의 지주계급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농촌을 떠난 사람”이었다. 따라서 인구구성에서 “소비자, 피고용인, 및 피치자로서의 조선인”과 “판매자, 고용주, 통치자로서의 일본인”이라는 계층적 구분이 생겼다.³⁶⁾ 이와 더불어 경성의 공간에도 일본인의 남촌과 조선인의 북촌으로 민족적 구분이 생겼다. 그리고 도시공간의 민족적 구분은 계층적 분화와 중첩되어 나타났다.

이태준의 단편소설은 경성 시내를 돌아다니는 조선인 빈민-세궁민 혹은 토막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이중 도시 경성을 배경으로 새롭게 등장한 인간 유형이었다.³⁷⁾ 소설에서 조선인 빈민의 모습은 그들의 거주지의 분위기만큼 음울했다. 그의 소설에서 이들은 종종 화사하게 벚꽃이 핀 봄 거리를 배경으로 우울하고 어두운 표정의 인물들로 부조된다. 이렇게 한 까닭은 “쓸쓸한 사람들이 다른 철보다 [봄에] 더 뚜렷이 보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봄

35) 김영근, 앞의 글, 145면.

36) 위의 글, 147-148면.

37) 토막민은 식민지 통치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계층(엄복규, 앞의 책 305면)으로, 그 인구수는 1936년에 이르르면 약 1만 7천여 명이 되었다. 이들을 포함한 실업자와 세궁민 등은 약 11만여 명이었으며, 이는 전체 경성 인구의 6분의 1 일 차지하였다; 광건홍, 앞의 글, 167-168면.

옷을 입었으되 빛이 나지 않고 꽃나무 밑을 거닐되 묘지에 선 사람처럼 어두운 얼굴들”이다.³⁸⁾ 작가는 그 얼굴 중에서 하나를 머릿속에 찍어 넣고 며칠씩 그와 함께 지내며 그에 대해 생각한다. 『봄』이나 『꽃나무는 심어놓고』 등은 그러한 관찰과 사색의 결과이다.

『봄』은 시골의 자작농 가정이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파산하여 도시의 최하 계층이 되는 이야기이다.³⁹⁾ 주인공 박은 시골에서 꽤 여유 있는 생활을 했지만, 빚 때문에 땅이 경매에 넘어갔고, 경매 후 남은 돈 천 원을 들고 서울로 올라왔다. 하지만 천 원은 서울에서 취직 운동을 하는 3년 동안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고 박은 완전히 파산하였다. 그의 가족들은 ‘빈민촌’으로 이주하였고, 빈민촌에 사는 탓으로 그의 아내는 장질부사로 죽고 말았다. 이후, 열 살이 된 딸은 학교를 그만두고 담배공장에 다녔고 박 자신도 인쇄소에 취직하여 둘 다 노동자가 되었다. 그의 삶은 그의 환경만큼이나 빛이 없는 것이 되었다:

밖알날이 어찌 밝고 따뜻한지, 그리고 행길에서 사람 소리가 어찌 변화스러운지 방안은 해가 높아갈수록 굴속처럼 음산해지고 가깝하였다. 여간 몸살쯤으로는 누워배길 수가 없었다.

박은 그만 어뜩어뜩 현기증이 나는 머리를 반동적으로 흔들며 일어나고 말았다.

『정칠 비나 쏟아지지 않구……』⁴⁰⁾

더구나 동굴처럼 어두운 방밖에는 봄처럼 밝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서럽게 했다. 어느 봄날 일요일, 박은 몸이 아픈 것을 핑계로 회사에 결근하고 나들이 가는 사람들에게 섞여 남산으로 올

38) 이태준, 『그들의 얼굴 위에』, 221면.

39) 이태준, 『봄』, 『달밤』,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 65-73면.

40) 위의 글, 65면

라갔다. 참으로 아름다운 날씨였다. 그런 만큼 박은 기계 사이에서 일하느라 아름다운 봄날을 누리지 못하는 설움을 더욱 크게 느꼈다: “참 세상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좋은 봄날은 우리는 우리 것으로 누리려보지 못하는구나 풀 한 포기 없는 시멘트 바닥에서 윙전기나 돌리구…… 어디 새 소리 한마디 들을 수 있나, 윈 종일 오장육부가 뒤 흔들리는 엔진 소리에 귀가 멍멍해 사는 것밖에……”⁴¹⁾

또한 아름다운 자연에도 주인이 있다는 사실은 돈이 없는 박을 더욱 서럽게 하였다. 남산의 “(조선)신궁”⁴²⁾ 앞 큰 마당에는 장난감 장사들과 음식 장사들이 시장을 이루고 있었다. 박은 담배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딸에게 풍선을 하나 사주고 싶었지만, 그의 주머니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대신에 그는 딸이 벚꽃을 꺾어다 병에 꽂아놓았던 것을 기억하고, 아무도 없는 구석 길에서 “큰마음 먹고 보기 좋게 핀 벚꽃 한 가지를 우지끈 하고 꺾어서” 두루마기 속에 넣었다.⁴³⁾ 하지만 박이 다섯 걸음도 옮기기 전에 산지기에게 잡혀 귀매기를 몇 대 맞았을 뿐만 아니라 꽃가지로 목덜미를 몇 번 맞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정철 세상’에 대한 박의 원망은 더욱 커졌다.

『꽃나무는 심어놓고』(1933)의 방 서방 가족도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와 토막민이 되었다. 집을 팔은 돈 몇 원을 갖고 서울에 올라온 방 서방이 자기의 가난한 집을 팔 곳은 경성의 이름 모를 다리 밑이었다:

고달픈 다리를 끄우고 교통순사들에게 핀잔을 맞으며, 정처 없이 거리에서 거리로 헤매이던 그들은 밤이 훨씬 늦어서야 한곳에 집을 벗어놓았다. 아무리 찾아 다니어도 그들을 위해서

41) 위의 글, 71면.

42) 조선신궁(朝鮮神宮)은 1925년 경정부의 남산-현재 남산 식물원 자리-에 세워졌던 일본 신사(神社)이다.

43) 이태준, 『봄』, 72면.

눈발을 가려주는대는 무슨 다리인지 이름은 몰라도 이 다리 밑밖에는 없었다. (...)

이튿날은 그래도 거기를 한대보다는 낫답시고, 거적을 사다 두르고 남비를 걸고 쌀을 사드리고 물을 기러드리고 나무도 사 드렸다. 그리고 세 식구가 위선 하루를 푹 쉬었다.⁴⁴⁾

이렇게 방서방 가족은 경성의 가장 하층민인 ‘토막민’의 삶을 시작하였다.⁴⁵⁾ 방 서방은 직업소개소도 가보고, 행랑도 구해보고, 지계를 지고 샅짐을 저보려고 서울 거리를 돌아다녔다.⁴⁶⁾ 하지만 지계를 부르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 방 서방은 선뜻 샅짐을 질 수 없었다. 더구나 다리 밑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경찰은 방 서방에게 불을 피우지 말 것을 명령한다. 거기다 식량도 다 떨어지게 되어 방서방의 가족은 겨울바람에 떨며 이틀이나 굶게 되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방 서방은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다. 방서방의 부인 김 씨는 밥을 동냥하러 나섰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때 김 씨는 다리를 찾아주겠노라는 “한 친절한 노파”에게 속아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었다. 방 서방의 두 살 된 딸은 아버지가 얻어온 음식을 잘못 먹은 데다 추운 곳에서 지낸 탓에 설사와 감기에 걸렸다. 방 서방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으나 돈이 없어 진찰을 받지 못하였고, 아이는 곧 죽고 말았다. 이처럼 방서방은 서울에서

44) 이태준, 『꽃나무는 심어놓고』, 128-129면.

45) 토막민의 약 2/3은 이촌향도 한 사람들로 그 대부분은 경성부 내에서 건축 및 토목 노동이나 지게, 행상, 녀마주의 등의 일에 종사하였다; 김경일, 『일제하 도시빈민의 형성』, 『한국의 사회신분과 사회계층』,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0, 225면.

46) 토막민은 체력을 유일한 자본으로 삼아서 그날그날의 수입으로 삼았다. 長郷衛二의 938년 서울 시내 토막민의 생업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날품팔이는 46.3%, 무직이 43.6%였다; 長郷衛二, 『土幕と其處置に就いて』, 『同胞愛』, 十七卷 1月號, 1939.1, 42面.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

봄이 되자 방 서방은 서울 지리에 익숙하게 되어 지계꾼으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서러워졌다. 그가 어느 일본 집 뜰 안의 가지가 휘어진 벚꽃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마침 일본 여자 하나가 꽃그늘을 거닐다 방 서방과 눈이 마주쳤다. “꽃결 같이 빛나는 그 젊은 여자”의 얼굴에 방 서방은 찌르르하고 가슴을 진동시키는 무엇을 느끼며 내려왔다. 그에게 “세상은 슬프다면 온통 슬픈 것도 같고 즐겁다면 온통 즐거운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술만 깨면 역시 세상은 견딜 수 없이 슬픈 세상이었다.”⁴⁷⁾

『점경』(1934.9) 역시 경성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다.⁴⁸⁾ 소설의 시작에서 한 아이가 불그스름한 황토가 묻은 미어진 고무신을 신고, 바지는 아랫도리가 끊어져 달아난 고무라 양복에 저고리는 조선 적삼을 입은 채 멩하니 화신백화점을 들여다본다. 화려한 진열장에는 한 상자에 ‘사원 이십 전’ 하는 과자 상자들이 전시되어 있다. 백화점에 진열된 과자의 값 사원 이십 전은 가난한 조선 아이와 그 가족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금액이었다. 아이는 과자 값보다 싼 석 달 치 수업료를 내지 못해 보통학교를 그만 두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좁쌀 값 스무 몇 냥(이 원) 때문에 장날 읍 바다에서 상투를 꺼들리고 뺨을 맞았으며,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후산을 못했는데 약값 외상이 많다고 의사가 외주지 않아서 멀쩡하게 돌아가셨다.⁴⁹⁾

소설은 한 농촌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한 개의 과자 값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보여줌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경제적 격차를 그리고 경성의 상류층과 빈민의 경제적 차이를 폭로한

47) 이태준, 『꽃나무는 심어놓고』, 136-137면.

48) 이태준, 『점경』, 『가마귀』,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 119-126면.

49) 위의 글, 120-121면.

다. 또한 경제적 격차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서 하층 조선인들이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태준은 한두 개의 장면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다.⁵⁰⁾

이태준의 소설 『복덕방』(1937.3)은 ‘부동산 투기’ 열풍과 그로 인한 비극을 다루고 있다.⁵¹⁾ 부동산-땅이나 주택-에 대한 투자는 지대의 상승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 투자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복덕방』은 이미 식민지 시대부터 서울의 집값은 꾸준히 올랐으며, 부동산을 통한 지대 추구는 결코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소설은 1932년 만주국 건설 이후 일본 자본의 조선에 대한 투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발생한 지대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대중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복덕방 주인 서 참위는 대한제국 시절 조선군의 ‘참위’였지만,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후에 가옥중개업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겨우 굶지 않을 만한 수입이었으나 대정 팔구 년(1919-20) 이후로는 시골 부자들이 서울로 몰려들면서 관철동, 다옥정 같은 중앙지대의 집값이 올라 가옥 중개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 지금은 중개업자도 많이 늘었고 ‘건양사’ 같은 큰 건축회사가 생겨 중개료의 수입이 전보다 줄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다. 그는 “칼을 차고 훈련원에 가서 병법을 익힐 때”의 기개를 생각하고 간혹 서글픈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하지만 영락한 옛 동료들 볼 때면 그는 자신의 지체에 만족감을 느꼈다.⁵²⁾

반면에 안 초시는 서 참위와는 달리 시세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는 여러 번 장사에 실패하여 파산하였다. 이후로 그는 무용연구소를 하는 딸에게 얹혀살고 있다. 그는 솜옷을 벗고 서양 셔츠를 입고 싶

50) Park Chan-seung, op.cit., pp. 90-94.

51) 이태준, 『복덕방』, 『가마귀』,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 177-197면.

52) 위의 글, 179-181면.

지만, 딸이 사주기 전에는 입어볼 수 없다. 서츠는커녕 그는 부러진 안경다리를 고칠 1원도 없었다. 딸은 무용연구소를 확장하는 데 관심을 쏟을 뿐 아버지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돈을 쓰는 것에 인색했다. 이 때문에 그는 돈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졌고, 때로는 경성의 “거리마다 짓느니 고층건축(高層建築)들이요, 동네마다 느느니 그림 같은 문화주택(文化住宅)들”인 것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에 비애를 느낀다.⁵³⁾

안 초시는 늙어 가는 것이 원통하였고, 어떻게 해서나 더 늙기 전에 돈 만 원이라도 붙들어서 이 세상과 교섭을 해보고 싶었다. 1932년 2월 만주국 건국 이후, 안 초시는 조선 내 일본인의 자본투자가 늘면서 생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궁리를 하였다. 때마침 그는 북덕방 친구 ‘박희완 영감’에게서 황해 연안에 제2의 나진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다:

안 초시는 “만주국이 되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해짐으로 황해연안에도 으레 나진과 같은 사명을 갖는 큰 항구가 필요할 것”을 생각하고, 그곳의 땅값이 백배 천배 오를 것을 계산하였다.⁵⁴⁾ 그는 딸에게 돈을 빌리려 투자하려고 하였지만, 딸은 은행에 집을 담보로 3000원을 빌린 후 자기 명의로 땅을 사버렸다. 그런데 일년이 지나도 삼천 원어치 땅에 항구가 생긴다는 기사는 조금도 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관변의 모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안 초시는 딸의 집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용돈도 떨어지고 말았다. 삶을 비판한 안 초시는 독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경성의 조선 빈민들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 때문에 점점 가난해지

53) 위의 글, 187면.

54) 위의 글, 189-190면: “초시는 관작노리가 육신거리였다. 정말이거만 하면 한시각이라도 먼저 덩비는 놈이 더 먹는 판이다. 나진도 오륙 전 하던 땅이 한 번 개항된다는 소문이 나자 당 년으로 오륙 전의 백배 이상이 올랐고 삼사 년 뒤에는, 땅 나름이지만 어떤 요지(要地)는 천배 이상이 오른 데가 많다.”

고 죽음 외에는 비참한 삶에서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태준은 이들을, 경성의 이중적 경관을 배경으로, 화사한 ‘봄빛’ 속에서도 어두운 그림자로 보일 뿐인 불행하고 가엾은 사람들로 묘사하였다.

4. 경성의 변두리에 거주하는 하층 조선인의 묘사

경성의 도시구조는 도시 내부의 남촌(일본인 집단거주지)과 북촌(조선인 집단거주지)의 구분뿐만 아니라 도심과 주변 지역으로의 분화되었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식민 도시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민족별 도시공간의 이중성 문제와 중첩되어 있다. 즉, 식민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성 지역에는 도심-주변의 이중적 공간구조가 형성된 것이었다. 1935년까지만 해도 현재 서울 지역의 많은 부분은 경성부에 편입되지 않고, 경기도 고양군이나 시흥군에 속해 있었다. 이중 고양군과 시흥군 일부 지역은 1934년 발표된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따라 1936년부터 경성에 행정적으로 편입되었다.⁵⁵⁾

이태준의 단편소설 중 1933년 이후부터 발표된 작품 중 몇몇은 경성의 변두리인 ‘성북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1933년 이태준이 가족과 함께 경성부 서대문정에서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248번지로 이사한 것과 연관이 있다. 원래 성북리는 경성의 대표적인 교외 지역으로 농촌과 다름없는 지역이었다. 대부분 조선인으로 구성된 이 지역 주민은 농토로부터 떠나게 된 농민들과 경성 시내에서 밀려난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대다수 주민은 도시 빈민과 같은 성격을 띠었다. 이 지역의 성격은 1936년 이후 경성부에 새로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토막민과 생활 수준이 거의

55) 김영근, 앞의 글, 164-6면.

같은 세국민이라는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⁵⁶⁾

특히 토막민은 경성 변두리에 주로 거주했는데 1930년대 중반까지는 식민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지 않았다. 토막민은 한일 병합 이후에 생긴 것으로, 다이쇼 초기(1910년대 초)에 행해진 조선의 토지 조사 무렵에 소유권의 확립으로 생겼다.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면서 불법 점유라는 인식이 생겼고, 사람들은 불법 점유자를 토막민이라고 불렀다.⁵⁷⁾ 토막민은 가난에 동반되는 게으르고 불결하며 범죄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식민 당국은 이들을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토지의 불법 점유자'로 생각할 뿐이었고, 1934년 경성의 시가지 계획으로 경성의 변두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관심을 주지 않았다.⁵⁸⁾

반면에 이태준은 토막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었으며, 성북동을 배경으로 한 단편소설에서 이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묘사하였다. 이태준이 성북리로 이사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발표한 『달밤』(1933.11)의 인물 '황수건'도 그러한 예이다. 『달밤』에서 이 선생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만난다. 그는 작가의 집에 신문을 배달하는 보조 배달원으로,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성북동)에 처음 들어서는 손님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주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이 선생에게 주었다.⁵⁹⁾

황수건은 도시 변두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 빈민의 전형적인 유형 중의 하나이다. 그는 원래 보통학교의 급사였는데, 이러한 직업은 빈민들이 주로 갖는 직업 중의 하나이다. 토지가 없는 이

56) 위의 글, 166면.

57) 長郷衛二, 『土幕民の話』, 『朝鮮新聞』, 1939.5.11: 엮복규, 앞의 책, 305면에서 재인용.

58) 위의 책, 305, 307면.

59) 이태준, 『달밤』, 『달밤』,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 141면.

들의 생계 수단은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이지만, 이들은 지식이나 기술이 없기에 노동으로 하루 벌이를 하며 산다. 황수건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근대적인 규율이 몸에 익지 않았고, 이 때문에 보통학교 급사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의 해고 이유는 정해진 시간에 수업 종료 시간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종료종을 쳤다는 것이다. 이후 그가 새로 찾은 일자리는 신문배달원 보조였다.

그렇다면 황수건은 당시 조선 빈민에 대한 세간의 시선처럼 불결하거나 게으르고 범죄적인 인물인가? 작가가 묘사하는 황수건은 조선 빈민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황수건의 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지껄이어도 힘이 들지 않고, 또 아무리 오래 지껄이고 나도 웃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뜨해지는 것도 좋았다”는 것이다.⁶⁰⁾ 더욱이 그는 보조 배달원에서 원 배달원이 되고 싶은 ‘향상심’도 있다:

하루는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나?」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먹기」라고 하면서 평생소원은 자기도 원 배달원이 한 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이십 부 떼어 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 배달원에게서 한 삼 원 받는 터이라 월급을 이 십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 배달이 제일 부럽노라 하였다.⁶¹⁾

화자인 이 선생은 못난이 황수건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의 소망-원 배달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황수건은 지능이 모자라

60) 위의 글, 146면.

61) 위의 글, 146면.

는 탓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시 실업자가 되고 만다.

황수건은 또한 못한 대로 인간의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화자가 직장을 잃은 그를 동정하여 과일 장사를 하라고 5원의 돈을 주었다. 황수건은 화자가 준 돈으로 참외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에게 ‘참외’를 맛보라고 갖다 준다. 이후 참외 장사가 망한 후에도 ‘나’의 도움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포도’를 선물한다. 물론 이것은 성북동의 한 포도밭에서 훔친 것이었기 때문에, 화자가 황수건을 대신해서 포도 값을 물어주는 수고를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도움에 답례를 하려는 황수건의 마음을 ‘순정’으로 받아들인다.⁶²⁾ 이처럼 황수건은 지능이 낮고 만성적인 실업에 시달리는 가난한 인물이지만 선물의 교환을 통해서 문안에서 이사 나온 지식인인 화자와 대등해지고자 한다.⁶³⁾

『달밤』에서 이태준은 경성 변두리 성북동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한다. 소설 속 성북동은 가난한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더럽고 범죄적인 지역이 아니라,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향상심이 있고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순박한 (그러나 지능이 떨어지는) 조선인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그는 경성의 공간적 구분에 따른 계층적 위계와 하층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편견에 도전한다.

『손거부』(1935.11)는 성북리에 거주하고 있는 ‘토막민’을 중심인물로 하고 있다. 주인공인 손거부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 노동, 즉 혼인이나 장례, 혹은 집터를 닦거나 우물 파는 데 가서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는 “천성이 ‘터벌터벌’하여 남의 말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아무한테나 허튼소리를 잘 걸다가도 때로는

62) 위의 글, 156면.

63) 장수익은 황수건에서 기층민중의 능동적 태도를 유추하고, 이는 작가가 다른 지식인들처럼 기층민중을 가난하고 무지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장수익, 『이태준 단편소설에 나타난 계급 관계와 미의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3, 2004.6, 233-235면.

당치 않은 구설도 듣는 수도 더러 있는, 아무튼지 떠들썩하는 자리에는 누구보다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⁶⁴⁾

작가인 화자가 손서방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자기 집 문패를 써달라고 청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나무판자를 화자에게 주면서 그 위에다가 주소와 자기 가족의 이름, 즉 본인과 아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을 다 적어달라고 부탁한다:

나는 이런 문패를 처음 써 볼 뿐 아니라 호구 조사 오는 순사한테 방패막이로 한다는 그의 말이 우습기도 하고 또 그의 어리석함에 일종의 취미도 느끼었다. 우선 첫머리엔 ‘고양군 승인면 성북리’라 쓰고,

“거기가 몇 번지요?”

물었다.

“번지 그까지 안 쓰면 어떻습니까?”

“왜 안 쓴단 말요? 아, 장자 차자 이름을 다 쓴다면서 정작 번질 안 쓰면 되우?”

“우린 아직 번지 없답니다.”

“번지가 없다뇨?”

“그게 개천 독에다 진 집입죠. 이를테면 국유집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인제 면에서 나와 번질 매겨 주기 전엔 아직 모릅니다.”⁶⁵⁾

이 소설이 발표된 1935년 11월은 토막의 철거로 사회적인 논란이 시끄러웠던 해이다. 1934년 발표된 시가지 계획령에 따라서 1936년 4월부터 성북리, 돈암리, 안암리 등의 지역이 경성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성북리, 돈암리 등의 지역은 도로망과 전철망이 확장되고 경성에 포함될 것이 결정되면서 지대가 상승하였다. 이 때문에 1935년경부터 “지가가 등귀 되는 눈치를 차린 지주들은 토지 명

64) 이태준, 『손거부』, 『가마귀』,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 41면.

65) 위의 글, 44-45면.

도를 토막민에게 독촉하여 쟁의가 날로 심해지”기 시작했다.⁶⁶⁾ 언론에서는 1936년 4월부터 경성의 행정구역이 확장되면, 부 인접지에 거주하는 빈민계급의 거주지 철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⁶⁷⁾

국유지의 불법 점유자인 손거부는 경성부의 도시계획 때문에 언제 강제 철거될지 알 수 없는 운명에 놓였다. 이 때문에 그는 국유지에 불법으로 지은 토막에 문패를 달아서 단속을 나온 경찰-일제시대에는 동사무소의 역할도 같이 했다-에게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인정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작가의 눈에 비친 손거부는 조선 사회의 가장 하위 계층이지만 향상심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자식에게 교육해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의 첫째 아들 대성이가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는 무척 기뻐하였다. 그는 아들의 입학 문제를 나에게 의논한 뒤, 나의 맥고 모자를 빌려 쓰고 학교에 가서 아들을 입학시켰다. 그는 아들의 수업료와 후원회비를 내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일했다:

“웬일유? 요즘은 잘 만날 수 없으니?”

한번은 물으니,

“아, 공부 하나 시키는 게 전과 달습니다 그러. 책 사주, 월사금 주 허구 돈을 달랍죠. 또 다 굶어두 학교에 갈 놈야 어떻게 굶집니까? 그래 진일 마른일 막 쫓아댕깁니다.”

하면서 흥-하니 달아났다. 한번은 손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올라왔다.

“아, 웬일유?”

“채석장서 일허다 돌에 짓찧답니다.”⁶⁸⁾

66) 『문화도시 경성의 압영』, 『매일신보』, 1935.2.18.: 염복규, 앞의 글, 312면에서 재인용.

67) 『확장 경성의 새 걱정』, 『조선일보』, 1936.1.22.: 위의 글, 312면.

하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의 소망은 좀처럼 실현되지 못한다. 화자는 산책을 하다, 뒷산 소나무 숲에서 손서방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아들에게 매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 화자가 알아보니 그의 아들은 저능아여서 수업을 따라갈 수 없어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소망을 버린 것은 아니다. 그는 셋째 아들이 태어나자 그가 식민지의 관리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이름을 짓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셋째 아들에게 ‘녹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화자에 눈에 비친 손거부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아들의 체면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변명해주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손거부가 문패에 셋째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달라고 찾아왔을 때 나는 맏아들 대성에게 “이놈, 왜 학교 안 댕겨?” 하고 물었다. 그러자, 손서방은 “대학교까지 시켜야지, 그렇지 않군, 무슨 회사나 상점 고시까이 밖에 못 된다고 해서, 그냥 막벌이 하는 게 마음 편하다며, 학교에서 자꾸 아이를 데리러 왔지만, 학교는 그만 다니라고 하였다”고 아들을 위해 변명하였다.⁶⁹⁾

황수건과 손거부는 식민지의 질서에 순종적이며, 정규직을 얻거나 자식은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문안에서 이사 나온 화자와는 점점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선생이 한 평에 이삼 원씩 주고 산 땅은 얼마 뒤에는 평 당 팔 원이 되었고, 1936년 이후에는 경성부에 편입되어 땅 시세가 오르는 바람에 그는 200평 중 100평을 팔아서 초가집을 헐고 기와집을 한 채 지었다.⁷⁰⁾ 반면에 황수건과 손서방은 실업을 반복하거나 토막에서 쫓겨나 점점 더 주변부로 밀려나 갈 운명이었다.

68) 이태준, 『손거부』, 51면.

69) 위의 글, 54-55면.

70) 이태준, 『토끼이야기』, 『돌다리』, 박문서관, 1943, 133면.

5. 결론: 불균등 발전에 대한 문학적 반응, 식민지 모더니즘

이상에서 이 논문은 이태준이 묘사한 조선인들의 모습은 식민지의 근대화와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인 것이 아니라, 제국과 식민지의 국제적 분업과 식민지의 도시화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의 소설은 소설에서 도시와 농촌의 불균등 발전, 그리고 경성 내부의 민족적 공간 구분, 그리고 도심과 변두리라는 공간 구분을 토대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조선인과 그 삶에 대한 문화적 반응이었다.

이태준의 단편소설은 조선의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가 경성 시내나 성북동에서 만난 빈민으로서 식민지 통치로부터 가장 피해를 본 인물들이다. 그는 경성 거리에서 만난 빈민-노동자, 지게꾼, 매춘부, 노숙자-들 중에서 자신의 시선을 끄는 인물들에 대해서 ‘왜 그들이 이곳 경성에 오게 되었나’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는다. 그리고 이태준은 그러한 빈민들의 등장을 일본 제국이 조선에 이식한 제도와 식민지 근대화 때문이라고 소설에서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태준이 묘사한 하층 조선인을 조선의 식민 통치자는 식민지의 잉여적 존재로 간주하고 무시하였다. 식민 통치자들은 하층 조선민을 “집안을 청소해도 위에서 자꾸만 흘러오는 하수”와 같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잉여 노동력으로 보고, 그들의 생활과 주거 환경 개선에 무관심했다.⁷¹⁾ 이들에게 관심이 주는 경우는 식민지 정책의 수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일 때뿐이었다.

반면에 이태준은, 식민 통치자들이 무시했던 조선 하층민들을 아름답고 섬세한 문체로 묘사하고, 그들에게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였

71) 京城帝國大學 衛生調査部編, 『土幕民の生活・衛生』, 東京: 岩波書店, 1942, 47面.

다. 그는 “인생의 그늘 속에서 움직이는 희미한 존재”인 하층 조선인들을 묘사하고 그들에게 선명한 인상을 부여하였다.⁷²⁾ 그는 이런 창작 스타일을 가치가 있기에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묘사하였기에 가치가 있다는 예술가의 태도와 연관시켰다.⁷³⁾

이로 인해 이태준의 작품은 ‘모더니즘’ 문학이 종종 보이는, 현실 문제를 내용으로 하지만 주제가 명확하지 않은 특징을 갖게 되었다.⁷⁴⁾ 당대 비평가들도 이 점에 주목하여 그를 예술가 혹은 문장가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카프 문학과 같은 주제가 분명한 문학이 있었던 까닭에, 당대의 비평가들부터 이태준 단편소설의 내용적 측면보다는 아름다운 문장이나 묘사와 같은 형식적 측면이 더 높은 평가를 하였다. 이태준 역시 이러한 평가에 부응하여 문장가,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면모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태준은 단편소설에서 식민지 통치가 낳은 불균등 발전의 부정적 측면을 아름답고 감각적인 조선어로 묘사-이것은 내용과 형식의 미학적 부조화를 낳았다-하고, 식민 통치자들이 식민지 근대화의 잉여적 부산물로서 무시했던 하층 조선인과 그들의 삶에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이태준은 조선의 ‘식민지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스타일과 예술성을 강조하는 창작방식을 결합함으로써 ‘식민지 모더니즘’의 한 유형을 창조하였다.

72) 최재서, 『단편 작가로서의 이태준』, 175-180면.

73) “예술가의 직무는 만들어 보려할 뿐, 그는 설명하지 않는다. (...) 막연한 말이나 무엇으로나 의미가 있는 인물이나 생활을 발견해서 자기류로 보여주면 훌륭한 소설 예술이다.”; 이태준, 『소설작법』, 『무서록』, 박문서관, 1941, 52면.

74) Fredric Jameson, “Reflections in Conclusion,” *Aesthetics and Politics: Debates between Bloch, Lukács, Brecht, Benjamin and Adorno*, London: Verso, 2007, pp. 201-202.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이태준, 「그들의 얼굴 위에서」(『신가정』, 1933년 3월), 『무서록: 이태준문학전집』 15, 깊은샘, 1994, 221면.
- 이태준, 『달밤』,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
- 이태준, 『가마귀』,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
- 이태준, 『돌다리』, 경성: 박문서관, 1943, 133면.

2. 2차 자료

- 강만길, 「일제시대의 도시빈민 생활-토막민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제53호, 1986, 111-154면.
- 강진호, 『이태준 문학 연구』, 고려대 석사, 1987.
- 김기림, 「스타일리스트, 이태준씨를 논함」, 『조선일보』, 1933.06.25.
- 김미영, 「이태준 소설의 회화적 특징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1권 제4호, 2008.
- 김민정의 『한국 근대문학의 유인과 미적 주체의 좌표』, 소명출판, 2005.
-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 김재용,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2003
- 김종근, 「식민도시 경성의 이중 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학』 38, 2010.2, 14-43면.
- 닐 스미스, 최병두 외 역, 『불균등 발전: 자연, 자본, 공간의 생산』, , 한울, 2017.
- 박승극, 「조선 문단의 회고와 비판」, 『신인문학』, 1935.3, 77-78면.
- 박진숙, 「동양주의 미술론과 이태준의 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6집, 2004, 389-415면.
- 박현호, 『이태준과 한국근대소설의 성격』, 소명출판, 1999.
- 배재수 외, 『한국의 근, 현대 산림소유권 변천사』, 임업연구원, 2001.
- 백철, 「문학과 사상성의 검토-내가 쓰는 작가 이태준론」, 『동아일보』, 1938.02.15-16.

-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 손정목, 『일제 강점기 도시화 과정 연구』, 일지사, 1996.
- 이익성, 『한국현대서정소설론』, 태학사, 1995.
- 이현식, 「1930년대 이태준 소설의 특성 연구」, 『상허학보』 18, 2006, 165-191면.
- 印貞植, 『朝鮮農業經濟論』, 박문출판사, 1947.
- 임화,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 장수익, 「이태준 단편소설에 나타난 계급 관계와 미의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3, 2004, 212-242면.
- 장시원, 「식민지하 조선의 반봉건적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4권 제1호, 1980, 38-139면.
- 장영우, 『이태준: 그들의 문학과 생애』, 한길사, 2010.
- 조형래, 「이태준과 성북동」, 『상허학보』 51, 2017, 141-186면.
- 최재서, 「단편작가로서의 이태준」, 『문학과 지성』, 인문사, 1938, 175-180면.
- 카터 J. 에커트, 주익중 역, 『제국의 후예』, 푸른역사, 2008.
- 하정일, 「계몽의 내면화와 자기 확인의 서사」, 『상허학보』 3, 1996, 175-200면.
- 홍효민, 「1934년과 조선문단-간단한 회고와 전망을 겸하여」 1-4, 『동아일보』, 1934.1.1-4.
- 황종연, 『한국문학의 근대와 반근대』, 동국대학교 박사, 1992, 1-235면.
- 京城帝國大學 衛生調査部編, 『土幕民の生活・衛生』(東京: 岩波書店, 1942), 서울: 민속원, 1998.
- 長郷衛二, 「土幕と其處置に就いて」(一), 『同胞愛』 제17권 1월號, 1939(昭和14), 36-46면.
- Jameson, Fredric, “Reflections in Conclusion,” *Aesthetics and Politics; Debates between Bloch, Lukács, Brecht, Benjamin and Adorno*, London: Verso, 2007.
- Park Chan-seung, “Japanese Rule and Colonial Dual Society,” *Korea Journal*, Vol. 50, No. 4, 2010.12, pp. 69-98.
- 「경성 지가 폭등, 시내는 5할고이나, 시외는 20할고로」, 『조선일보』, 1936.02.22.

- 「삼림령 위반 매월 60여 건」, 『동아일보』, 1930.09.08.
- 「森林令團束去益甚 火田民의 生活漠然-삼림령단속이 갈수록 심해져서 벌금 구류 등 위반자가 날로 늘어 五百餘戶의 過冬이 問題(伊川)」, 『동아일보』, 1930.10.13.
- 「森林令의 殺人, 삼림령으로 살 수 업서 화던민이 자살」, 『동아일보』, 1925.06.01.
- 「地價騰貴 싸러 爭議도 頻頻: 土幕民은 어데로 가나? 東署管內만 萬餘名 勿驚!」, 『매일신보』, 1935.02.19.
- 「춘궁기와 인신매매 문제」, 『동아일보』, 1936.02.25.



<Abstract>

The Uneven Development of Colonial Korea
and Colonial Modernism
—Focusing on Yi Tae-jun’s Short Stories,
1930-1937—

Bae, Gae-Hwa

Yi Tae-jun’s short stories depicted mainly the peasants who left their farm villages due to Japanese policies toward colonial Koreans, and the poor in Gyeongseong and its suburbs. Previous studies on Yi’s short stories, regarding ‘Japan as modern while Korea as pre-modern,’ asserted that Yi expressed nostalgia for intrinsic Korean things which disappeared with modernization. On the contrary, this study, regarding the miserable life of Korean lower-class depicted in Yi Tae-jun’s short stories as the phenomena of daily life created by colonial modernization, argues that Yi illustrated a new type of life and people that resulted from the uneven development of Korea based on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imperial Japan and colonial Korea. Japanese imperialism viewed lower colonial Koreans as redundant labours, which were imperishable under the no protection. In contrast, Yi made them invaluable in his literature by describing their life using beautiful and delicate Korean language, and created a type of colonial modernism in this manner.

Key words: Yi Tae-jun, Short Story, Uneven Development, Colonial Korea, Modernism, Gyeongseong

투 고 일 : 2019년 2월 28일 심 사 일 : 2019년 3월 2일-3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9년 3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9년 3월 27일